



부산시 청사

현상응모 소감

중앙설계 신 우 강

금번 부산시 청사 현상응모에는 대지의 형태, 위치 그리고 인구 3백만, 작품활동 기간 6개월을 주었을뿐 그의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 현상공고가 있을 때 으레 하던 일에 계속 쫓기다 보면 6개월 아닌 1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실제 작품활동은 마감일이 1,2개월 전으로 박두해야만 시작하는 관습을 버리고 이번만은 진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불로무공(不勞無功)이라는 생각은 평소 나의 생활신조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활동에 임하기로 마음 굳게 먹었다.

사무실 요원(member) 중 주되는 2명을 약 4개월 전부터 별실에서 연구토록 하고 다른 작업은 일체 시키지 않기로 했다.

우물안 개구리 격(格)이 되거나 앓을까 하여 2명의 직원과 함께 상경하여 국전(國展)을 보고 서울에서 이를 있는 몇몇 사무소를 견학도 했다. 그때부터 마음 속 깊이 짙은 의욕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응모에 당선 안되면 금후 다시는 어떠한 현상공모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까지 할 정도로 모두들 작오가 대단 했었다.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연구결과를 토의하고 종합적인 타당성을 얻는데 노력했었다.

사무실 윗층에 별도로 연구실을 두고 가능한 한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연구에만 고심하도록 했다.

때로는 강제성을 피우게 된 것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도 했지만 계속 일은 추진되어 가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마감기일 약 2개월을 앞두고 있을 때 동료 건축가들과 다방 또는 회합에서 환담할 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울에서 100여점, 부산에서 10여점 출품되라고 하였다.

출품작이 많을수록 좀더 많은 좋은 작품들과 어찌를 겨누게 될 좋은 절전장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작품에

대한 구상과 규모에 좀더 깊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작품을 하고 있느라고 별반 공개도 없이 내적으로만 충실하려 했으므로 마감일 까지 부산의 동료들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마감일은 왔다.

뜻밖에도 서울에서 5점, 부산에서 4점, 대구에서 1점, 전라도에서 1점 이라는 결과를 보고는 대결하겠다는 의욕에서 일종의 허탈감을 가졌다.

본인의 작품은 4척각(尺角)으로 22매, 모형 3척(尺)×5척에 높이 2척이었다.

심사가 끝나고 본인 사무실에 당선을 알려주는 전화가 왔을때 본인은 물론 4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였던 직원들과 함께 기쁨의 합성을 올렸다.

보람을 느끼는 희열의 표현이었다.

서울에서 오신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심사평을 들었는데 뜻밖에도 역작(力作)이었다는 평에 기쁨을 금하지 못했다.

건축인의 태도

적임상 부득이 하겠지만 생각하는 시야가 좁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타인에 대해 칭찬할 수 있는 아량과 자세가 없고 언제나 타인의 작품에 왈가왈부함이 비일비재함이다.

물론 비판 판단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 줄은 알지만 정당하게 훌륭하고 당당하게 대결하는 자세가 아쉽고 이터하지 못함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서로가 좀더 생각해 불만한 일이다.

자신을 알기 위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시청사 본설계를 시작하게 되는 지금 전국의 선배들을 모시고 본인의 안에 대한 솔직한 평을 받고 아질(我執)보다는 광범위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집념이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